Storybooks Canada

storybookscanada.ca

하마는 왜 털이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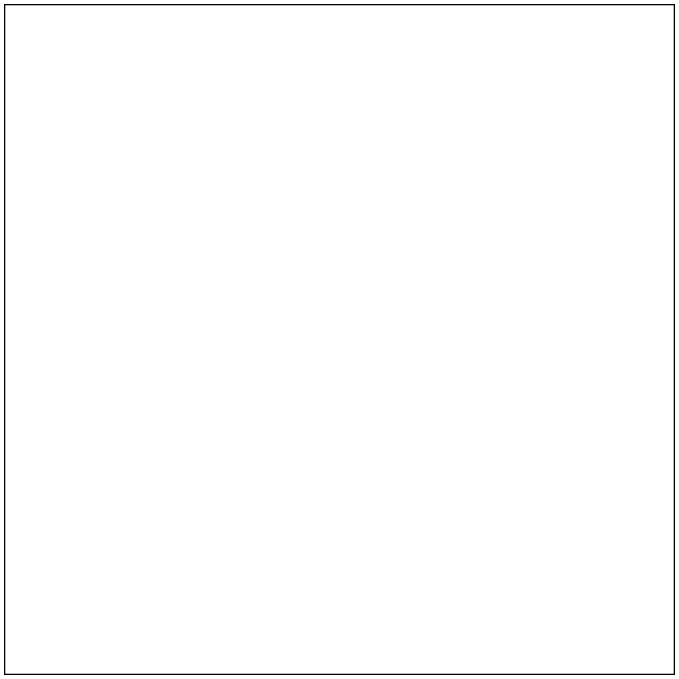
Written by: Basilio Gimo, David Ker
Illustrated by: Carol Liddiment
Translated by: Michelle Kim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Canada'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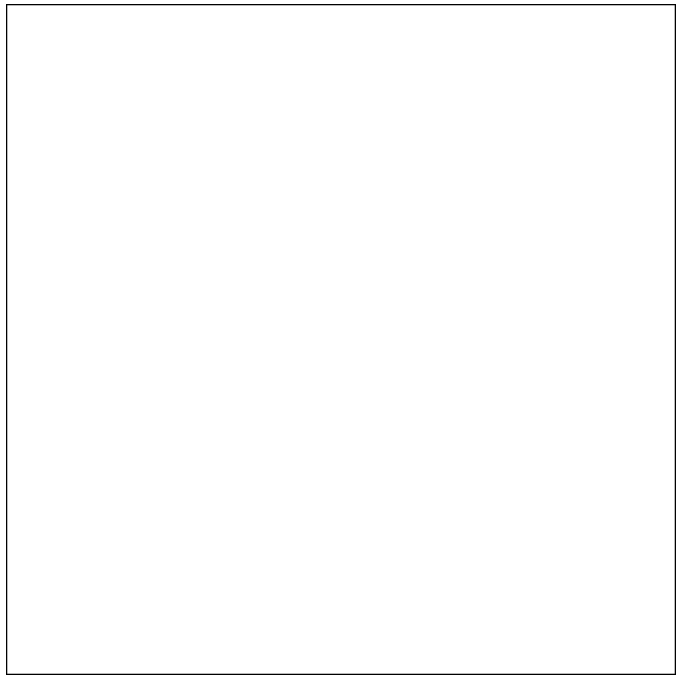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하마는 왜 털이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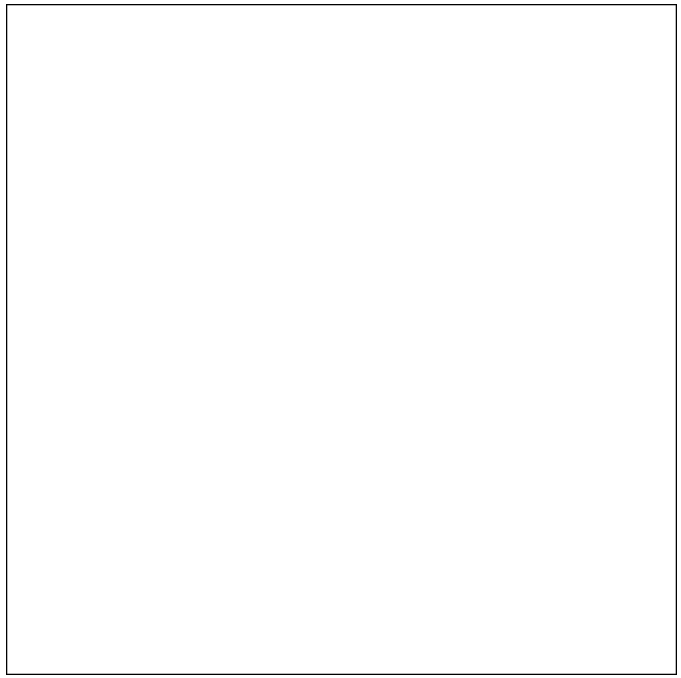


Basilio Gimo, David Ker
Carol Liddiment
Michelle Kim
Korean
Leve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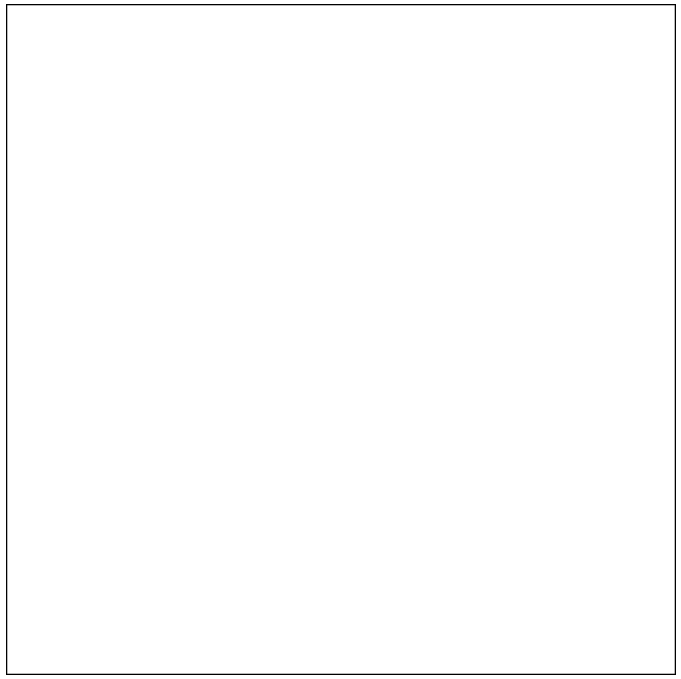
(imageless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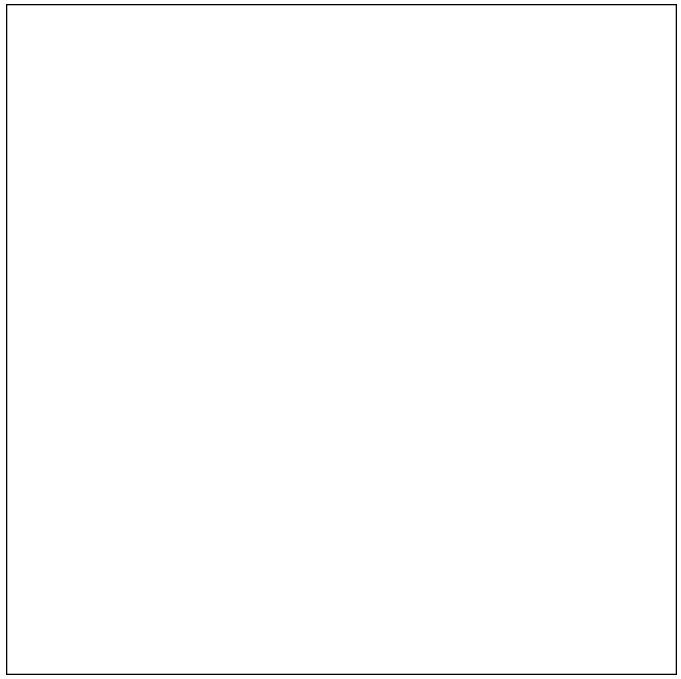
어느 날, 한 토끼가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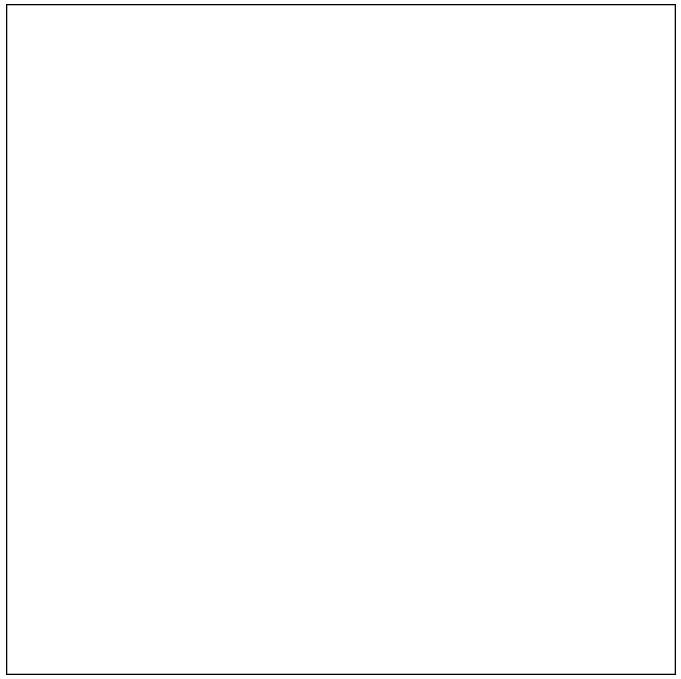
그 강가에는 하마도 있었는데, 하마는 산책을 하며 상쾌하고 푸른 풀을 먹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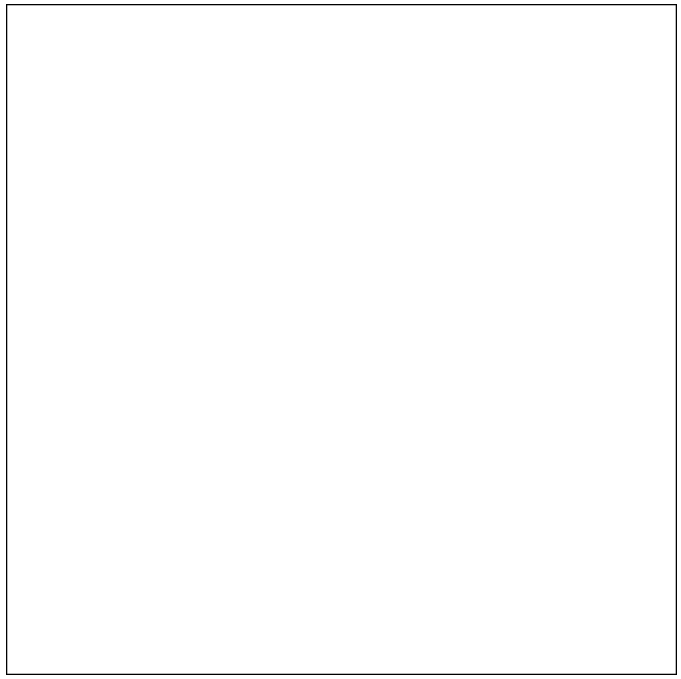
하마는 토끼가 자기 옆에 있다는것을 모르고 토끼의 발을 밟아 버렸어요. 토끼는 비명을 질렀고 하마에게 소리쳤어요, “야 이 하마야! 너 지금 내 발 밟고 있는거 안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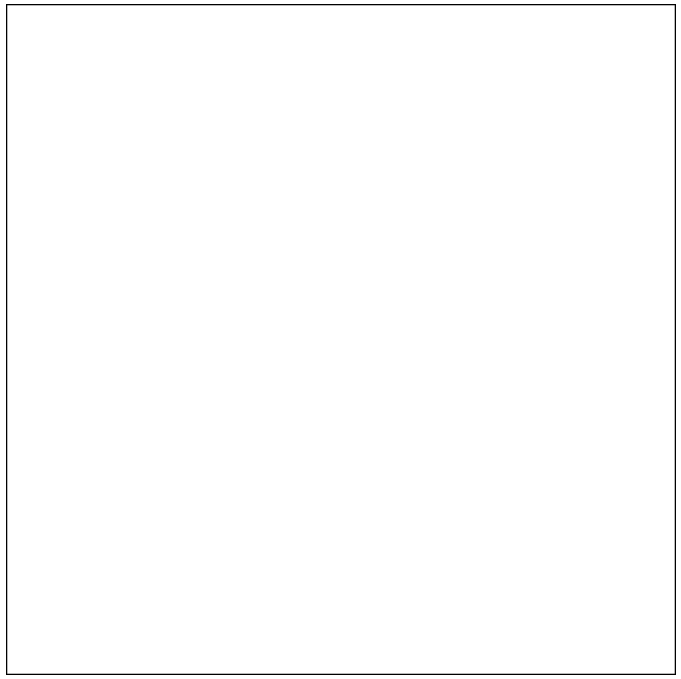
토끼는 하마의 머리가 타서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마는 불이 두려워서 물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거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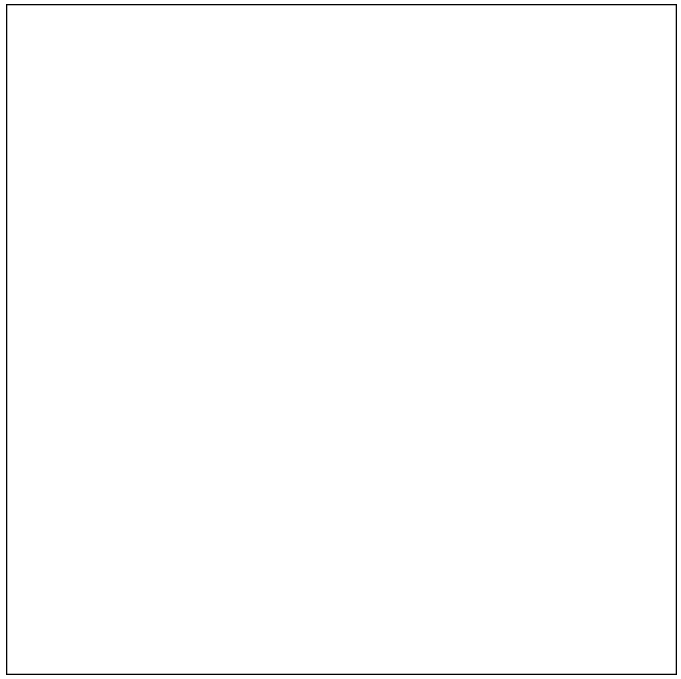
하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물가로 뛰어 갔어요. 하마의 모든 털이 불에 타 버렸어요. 하마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내 털이 불에 다 타버렸어! 너가 내 털을 다 태워버렸어! 내 털들이 다 사라졌어! 내 아름답고 아름다운 털이!”



하마는 토끼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친구야. 너를 못봤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토끼는 하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너 일부러 그랬잖아! 두고봐, 너도 언젠간 똑같이 당할 거야!”



그러고는 토끼가 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 하마가 풀을 먹으려고 물에서 나오면 불로 태워줘. 쟤가 나 밟았어!” 불이 대답했어요, “그래! 내 친구 토끼야. 너가 하라는 대로 할께.”



잠시후, 하마는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 불꽃이 하마한테 붙어서 하마의 털을 태우기 시작했죠.